



금강대학교

내 맘속에 저장된 비교과 프로그램은?

2020 비교과 참여수기 공모전 작품집

로터스칼리지





[CONTENTS]

최우수상

강가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FunFun(뽐뽐)한 토익공부!	이지현(글로벌 융합학부)	07
---------------------------------	---------------	----

우수상

① 비대면 수업, 혼자가 아니야	홍성민(행정학과)	15
② 외국어 능력이자 된 초석	김수림(행정학과)	19

장려상

① 맛있는 지식을 배우다, 모의투자 실전!	김동원(행정학과)	25
② 색(色)보다 더 다른 색(色)	강동훈(국제통상통역학과)	31
③ 장기전에서의 조력자	장예진(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	35
④ 또 다른 언어	이은정(사회복지학과)	40
⑤ 영알못에게 매우 유용한 비교과	서건희(불교인문학부)	44
⑥ 나는 100% 해냈다	서혜주(사회복지학과)	47
⑦ 실전보고서 작성법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글쓰기 비법	김예찬(불교학과)	49

참가상

① 알게 모르게 자기 이야기가 꺼내지는 해석상담	이채은(경영학과)	53
② 타로로 한 발짝 더	백채민(경영학과)	55
③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권지훈(응용불교학과)	59
④ 랜선 유럽여행	이한이(글로벌지역통상학(중국))	63
⑤ 나에게 맞는 옷	노명지(사회복지학과)	66

최우수상

강가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FunFun(뽐뽐)한 토익공부!

이지현(글로벌 융합학부)

◆ 프로그램명 : 영어인증제(교양교육센터)

강가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FunFun(뽀뽀)한 토익 공부!

이지현(글로벌 융합학부)

◆ 프로그램명 : 영어인증제(교양교육센터)

1. 들어가기 전에

영어는 매년 내가 넘어야 할 산이며 숙제였다. 지금도 자신 있는 분야가 무엇이나 물으면 영어는 제외하고 고민할 것이다. 이 정도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매년 나의 발목을 잡아 온 학문이기엔 나랑 친해질 수 없는 분야라고 스스로 벽을 쳐왔었다.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던 나는 안 해본 것 없었다. 학원, 과외, 팝송으로 공부하는 그룹 스터디, 인터넷 강의 등 영어 공부를 위한 여러 수업 방식의 사교육은 다 시도해 본 것 같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신입생들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모의 토익을 응시한 적이 있다. 그 순간 직감했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영어에 발목 잡힐 수도 있겠구나. 수강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수강 편람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개설 수업 중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영어 교양 강의를 진짜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 한편으로는 걱정부터 앞섰다. 그 과정에서 20학번 졸업요건에 영어인증제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걱정부터 앞섰다. 영어가 두려워서 대학교에 오면 지긋지긋한 영어의 굴레에서 해방이겠구나 싶었는데 영어인증제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졸업 인증 수업 중 하나인 거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영어와 친해지겠다는 마음으로 강가희 교수님의 영어인증제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2. 프로그램 소개

“영어인증제”라는 프로그램명만 봤을 때는 어떤 수업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이 수업을 신청한 학우들은 매주 이를 두 시간씩 총 4시간의 토익 강의를 듣게 된다. 첫 주 중 하루는 프로그램에

대한 OT를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날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빨리 수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던 기억이 난다.

영어인증제는 개강 전 응시했던 모의 토익 점수를 기반으로 브론즈(Bronze), 실버(Silver), 골드(Gold) 총 3개의 레벨로 학생들을 분반 배정해 진행되는 수업이다. 나는 2020학년도 1학기에 브론즈, 2학기에 실버 과정을 이수했다. 브론즈(Bronze)는 토익 600점과 토익 스피킹 Lv.5를 목표로 해당 점수에 요구되는 독해력, 청취력, 말하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실버(Silver)는 토익 700점과 토익스피킹 Lv.6를 목표로 공부하게 된다. 수업의 세부 내용은 단어 테스트, RC(문법) 문제 풀이 전략 설명 및 실전 연습, LC(리스닝) 이론 설명 및 문제 풀이, 매주 숙제를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틀 중 하루는 RC와 토익 스피킹, 또 하루는 LC를 배웠는데, 그래서인지 매주 해당하는 과제에 쫓기는 느낌 없이 편하게 토익 수업을 즐길 수 있었다.

교수님만의 꿀팁을 설명해주시는 부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유익했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론 설명만 하다 보면 지루하고 금방 흥미가 떨어지게 되는데, 가희 교수님 설명은 달랐다. 예를 들면, 토익 스피킹 Part2. 그림 묘사에서 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패턴을 정하고 하면 쉽다고 설명해주시며, 그림의 왼, 좌, 오른, 우로 나누어 답변한다면 시간 내에 훨씬 풍부한 답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그림의 뒤편에는),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그림의 왼쪽에는) 등 한 번에 몇 가지의 숙어도 함께 공부할 수 있었다.

영어인증제는 다른 수업들과는 달리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이다. 시험 기간에 해당하는 주는 다른 수처럼 똑같이 진도를 나가고, 학기 말에 기말고사와 자신의 토익 실력이 학기 초보다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를 보기 위한 모의 토익을 응시하게 된다. 모의 토익을 통해 자신의 영어 실력을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다.

정리하면 영어인증제 프로그램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복습하며 수업을 들으면 훨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학기 중에 토익 공부를 병행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재를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리큘럼의 강의이다.

3. 영어인증제를 수강하면서 좋았던 점

대학생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자기 계발에 힘쓰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토익 공

부를 한다. 토익은 현재 우리 삶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대학교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따로 시간을 내거나 방학 중에 틈틈이 토익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학기 중에 기존의 대학 수업과 영어공인시험을 하나의 교양 과목처럼 학기 수업과 병행하며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였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교재도 무료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 중 하나였다.

교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 면에서 힘도 실어주시고, 무엇보다 질의응답을 통한 상호 소통적인 수업 방식 또한 좋았다. 이런 강의 방식이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지루하지 않고 생동감 넘치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학기 초에 수업이 수준별로 진행되는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는 설명으로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주겠다는 교수님의 집념이라고 생각했었다. 실제 수업 시간이 그걸 증명해주었다. 새로운 이론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을 살피며 이해가 됐는지, 문제에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친절하게 반복 설명해주셨다. 영어인증제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부분에서 나는 다른 학생들과 나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공부해서 더 학습효과를 극대화한 케이스인 것 같다.

교수님께서 높은 점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신이 얼마나 이해했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습하는 과정에서 깨닫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수의 일치나 시제 등 문법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강의는 얼마든지 있다. 영어인증제는 그 외의 스스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두 배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깨닫게 해주는 수업이었다.

이렇듯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리고, 토익이 아닌 어떤 것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학생들이 깨닫게 해주는 강의라는 것이다. 수강자들은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자신만의 영어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발전시키면서 “효율적인 학습법”과 “토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상승할 것이다.

4. 수업의 평가 방식

영어 인증제는 P(pass), NP(none pass)로 평가되므로 “학기 말 시험 때만 바짝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한 학기 동안 배운 전체 내용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꾸준히 복습해주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평가의 상세 항목은 먼저 출석이 20%, 과제 25%, 기말고사 50%, 기타(참여도) 5%가 반영된다. 여기서 기타 참여도는 매주 보는 단어 시험이나 수업 시간 교수님과의 상호소통의 자세를 반영한다. 기말고사와 학기 말에 응시하는 모의 토익으로 시험은 두 번 응시한다. 여기서 모의 토익은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수준을 점검해보는 시간이다. 기말고사는 RC와 LC 평가 방식이 조금 다르다. RC는 수업 중 다뤘던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되는 객관식 시험이다. 주로 교재에서 실전 테스트 페이지의 문제들과 비슷하게 출제된다. LC는 레포트 형식으로 각 파트마다 어떤 문제이며, 어떻게 듣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된다.

매주 출석을 부른 후 단어 시험이 진행된다. 단어 시험은 교수님께서 띄워주시는 화면을 보고 자신이 아는 단어의 뜻을 자유롭게 말하는 방식이다. 단어 시험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암기하는 학생들은 매주 수업 시간에 자신이 얼마나 단어를 기억하는지 테스트하는 기회가 된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단어 발음을 들을 수 있는 파일을 통해 단어 암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5. 나의 영어인증제 프로그램 참여 태도

어떤 수업이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나 또한 1학기 영어 인증제 수업 시간에 몸소 느꼈다. 평소 차분하고 눈에 띄는 편이 아니다.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꺼려하고 긴장하는 편이며, 분위기를 잘 타는 편이라 조용한 수업 분위기면 나도 그 분위기에 맞춰 가는 타입이다.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질문을 하시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정적이 흐르는 경우가 많았다. 뭐든 처음이 어렵고 다음은 쉽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이왕 하기로 마음먹은 거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보자는 마인드로 남들이 어떻게 나는 대답하고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확실히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물음에 직접 입을 열고 대답하면 수업이 끝난 후에 그날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단번에 기억난다. 따로 시간을 내어 수업내용을 곱씹을 필요 없이 복습 차원의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정리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수업 중 화이트 스크린에 판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판서는 교수님만의 언어로 정리된 것으로 기억에 오래 남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교재에 필기를 해줘야 한다. 수업 중 강조하시는 내용과 판서를 토대로 강의 노트를 수업 시간마다 작성했었다. 특별하고 보기 좋은 노트 정리가 아니라 “키워드”나 “외워야 하는 숙어”, 문제 유형별 풀이법 등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수업 시간 동안 강의

노트를 정리하면서 들으면 학기 말에 처음부터 배운 내용을 공부할 때 새롭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부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고, 중요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추천한다.

그전에는 단어를 암기할 때 감지를 자주 썼었다.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단어교재는 어플로 재밌게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통해 학습할 수도 있었다. 스마트폰 어플로 단어 발음을 들으며 반복했고, 즉시 테스트를 보며 암기 여부가 점검되었다. 쓰면서 외우는 방식보다 오히려 스마트폰 화면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머리에 저장되어서 오래 기억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6. 영어인증제 수강 후 변화 및 느낀 점

가장 큰 변화는 영어를 기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교수님과 상호 소통적인 방식 속에서 토익을 즐겁게 공부하면서 더불어 지식적인 것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영어는 들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공부법을 터득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교수님께 이론적인 내용도 많이 배웠지만, 규칙적인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다.

이미 충분히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만족도도 커서 개선할 점은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수업은 충분히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충분히 체계적이고 수업 방식이나 평가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적당한 분량의 숙제도 마음잡고 하면 금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꾸준히 복습한다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다.

“FunFun(뽀뽀)한 영어인증제 수업!” 뽀뽀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했을 때 유일하게 용서되는 것이 “공부를 뽀뽀하게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내가 남들보다 이해력이 부족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실력도 향상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맴돌지 않고 남들 상관없이 뽀뽀하게 질문도 하고, 모르는 걸 자꾸 드러내며 도움을 요청해야 실력이 늘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질문 내용은 복습하면서 이미 한참 전에 배운 내용의 질문이었다.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순간 연락을 드릴지 말지 고민했고, 연락을 드리면서도 이런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 창피하다는 말도 교수님께 했었다.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이 기억에 남는다. “세상에 부끄러운 질문은 없어요.” 정말 그렇다. 내가 모를 때마다 질문하고, 복습하고 한참 전에 배운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하면 되는 것이다. 남들이 나보다 앞서든, 점수가 더 잘 나오든 상관없다. 영어인증제는 나의 틀에 박힌 생각과 공부 주관을 바꿔준 수업이었다.

7. 맺음말

첫 대학 생활의 시작을 비대면으로 하게 된 점에 아쉬움이 크다. 그중 하나가 온라인 수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주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되는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다른 학우들이 비대면 기간 동안 교내 프로그램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수강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수강하면서 만족도가 컸던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고 추천하는 계기가 되면 같은 금강대 학생으로서 다 같이 WinWin(윈윈)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질 좋은 강의가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 수강자로서 수강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싶다.

첫째, 질문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는 외국어이므로 우리가 생소해하고 모르는 것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한 번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어렵다. 질문하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과정이 내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일 것이다.

둘째, 수업이 끝난 후 복습이 매우 중요하다. 수업 시간 교수님의 설명은 완벽하다. 하지만 그것은 교수님의 지식이며 아직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시작하지 않았다. 복습하지 않으면 교수님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강의하시고 팁을 전수해주셔도 복습 전의 위치에 우리는 멈춰있다. 복습하며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풍부해지지만,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이 자리 잡힘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나는 나고 그들은 그들이다. 다른 사람의 수준과 내 수준을 대조 비교하며 스스로 불안해할 필요 없다. 내가 모르는 것은 반복해나가고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매주 4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인 만큼 많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따라잡기 어려워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공부한다면 적어도 도중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수상

① 비대면 수업, 혼자가 아니야

홍 성 민(행정학과)

◆ 프로그램명 : 또래학습멘토 양성과정(교수학습지원센터)

② 외국어 능력자가 된 초석

김 수 림(행정학과)

◆ 프로그램명 : 파트너쉽 프로그램(금강어학원)

비대면 수업, 혼자가 아니야

홍성민(행정학과)

◆ 프로그램명 : 또래학습멘토 양성과정(교수학습지원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사회는 빠르게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었다. 대학생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수업과 시험을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비대면 수업을 시작한 20년도 1학기는 학생 그리고 교수님 모두에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수업은 보통 실시간 강의나 녹화 강의로 이루어졌는데, 실시간 강의에서는 (줌미팅)zoom meeting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정말 어색하고 어려웠다. 하루는 '화면 공유'라는 버튼을 잘못 눌러 교수님의 피피티 화면 대신 내 노트북 바탕화면이 그 수업의 모든 학우들에게 공유된 적이 있었다. 교수님은 나의 화면공유를 꺼달라고 요청하셨지만 나는 그 방법도 몰랐고, 결국 교수님께서 다시 화면 공유를 하셔야 했다. 비대면 수업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비단 나 뿐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교무지원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제로 전화를 했었다. 새로운 프로그램 사용과 적응에 대한 어려움, 강의의 질 저하, 집중력과 가독성 저하, 출석 문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문제로 만약 다음 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면 휴학을 하겠다는 친구들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비대면 수업에 적응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때 교수학습지원센터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다. 함께 공부하고자 의지를 갖고 활동하길 원하는 학습리더들을 양성하여 2학기 이후의 학습모임을 대비하기 위하여 '또래학습멘토 양성과정'의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1학기에 혼자 힘들어 했던 비대면 수업의 경험을 학습 모임을 통해 다른 학우들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고, 그 전에 이 과정이 원활한 학습 모임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과정을 마친 후 자기주도학습코치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도 솔깃했다. 사실 이 자격증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스스로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 방

법을 찾고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성과를 발휘하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방과후지도사 자격증 중 하나라고 하였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해 막연히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주도란 자신의 삶에 적극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인생의 사명을 통해 학습목표를 정하고 자신에게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주도학습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깨달았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왜 동기부여가 지속되지 못하는지, 계획은 늘 실천되지 못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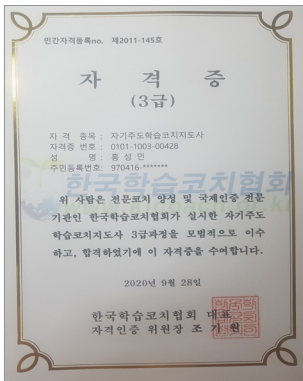
제일 처음 배운 것이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동기부여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시켜서하는, 수동적 공부만을 해왔을지도 모른다. 중학교 때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야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기위하여, 대학교에 와서는 취업을 하기 위하여 공부한다. 나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목표이고, 동기부여 원인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내 결정에 의해 나온 공부 의지가 아닌 두려움이 만든 공부의 원인이었다.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 “노력하지 않으면 취업하지 못할거야”라며 스스로 협박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강사님은 이러한 두려움이 의도한 동기부여는 어떻게든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 결과로 또 두려움이 야기되며, 에너지가 작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당장 급하게 액션부터 하도록 유발하여 성과가 낮다고 하셨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존재이유에서 나오는 탁월성을 인지하여 높은 수준의 동기부여 원인을 계속 생각해 나가야한다고 하셨다.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었다.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취업하고 싶은 것이고,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이것도 엄청 고차원의 동기부여는 아니지만 취업이나 장학금의 두려움 때문보다는 한층 높은 수준의 목표인 것 같다. 공부의 원인이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이 되자 공부하는 시간이 나에 대한 투자이며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쓰이는 시간이라는 생각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경청의 기술, 코칭의 기본인 GROW 대화법, 기질에 따른 학습스타일, 암기법, 계획 관리하는 법, 공부환경 조성 등 코칭의 이론과 학습전략 등에 대해 배웠다.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강사님 혼자서만 이끌어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 전원이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GROW 대화법을 적용할 때 모든 사람이 코치가 되기도 하고 코치이가 되기도 하였다. 학생들 모두 진지하게 서로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코칭이 끝나면 코치의 좋았던 점과 문제점에 대해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었다. 그 중에서도 나의 고민을 코치해줬던 1학년 학우가 기억에 남는다. 내 고민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복잡적이며 취업과 관련된 고민이어서 1학년 학우가 상담하기 곤란한 내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해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서 너무 멋져보였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어도 말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능력을 가진 친구였다. 항상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코칭이 가슴 깊숙이 울림을 주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힘이 있다. 강사님뿐만 아니라 선배, 동기, 후배에게도 배워가는 것이 많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토레학습멘토 양성과정과 함께한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를 맞이한 나는 그동안 배우고 느낀 것들을 활용해서 학습모임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금강이음새 동반튜터링과 디딤돌 학습파트너십을 지원했다.

동반 튜터링은 영어 과목 성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여름방학 과정에서 배운 대로 총 6번의 만남을 통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들을 세웠고, 자투리 시간까지 알차게 활용하였다. 만약 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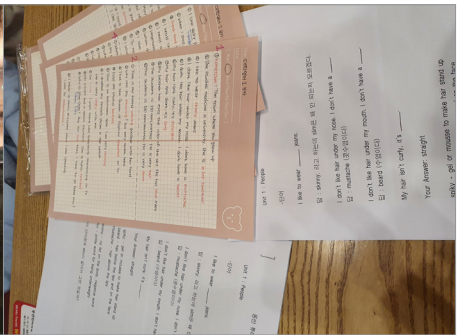


▲ 자기주도학습코치지도사 자격증

링 시간동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카톡으로 사진과 문서를 보내며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 시간 동안에는 서로 '듀오링고'라는 무료 영어 학습 앱을 통해 재밌게 공부했다. 동반 튜터링은 부담없이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이 가능하고,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매 수업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어 계속 의욕을 떨어트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오히려 시험기간에 영어는 공부해야 할 양이 많지 않아 다른 전공과목들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팀 전원이 영어 졸업 과목에서 A+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사실 비대면



▲ 튜터링하는 모습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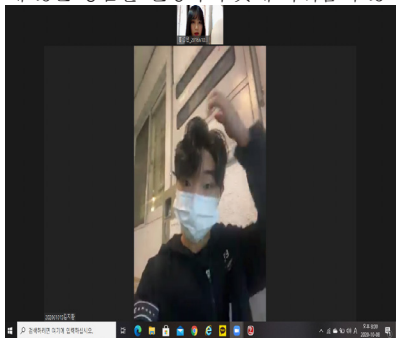
▲ 튜터링하는 모습2

학기선택 : 2020년 2학기 ▶ 출력						
이수구분	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등급	담당교수	비고
졸인	AT10016	경제영어에세이읽기	3	A0	한달	
졸인	C806964	대학영어2	2	A+	한달	

▲ 2학기 영어 성적 (지난 학기 영어성적은 B+)

수업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나 집중력에 있어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동반 튜터링을 하면 2주에 한 번씩은 만나 학습을 점검해야하기 때문에 절대 강의를 밀릴 일이 없고, 밀린 강의에 지치는 일 없이 수업 진도를 따라 갈 수 있다. 만약 자신이 계속 미루는 습관이 있어 공부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면 튜터링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디딤돌 파트너십은 행정학 전공을 원하는 1학년 멘티와 함께 하게 되었다. 근로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새내기 학우가 있었는데 지난 학기 학사 경고를 받아 휴학을 고민하던 친구였다.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이 친구가 수강 신청이나 장학 제도, 이수해야 할 과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비대면 환경에서 다른 신입생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대면 환경에서는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 등을 통해 선배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얻고, 교수님들과 상담하는 경험이 여러 번 이루어졌을 텐데, 이번 신입생들은 교수님과 선배, 동기들을 컴퓨터 화면으로만 볼 수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을 것이었다. 나 또한 신입생일 때 선배들을 통해 수업 추천을 받고, 교수님 성향에 대한 정보, 학과에 대한 정보,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 등을 많이 얻고 성장했기 때문에, 파트너십 멘티에게도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는 목표로 프로그램에 임하였다. 또래학습멘토 양성과정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친밀감 형성(Rapport building), 시험 대비 계획 수립, GROW 대화를 통한 학습 문제 파악 및 해결을 포함하여 멘티와 함께 총 6회차의 학습 계획을 정하였다. 중도에 멘티의 자퇴로 인해 많은 상담을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파트너십이었지만, 나와와 상담이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가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멘티와의 상담을 통해 신입생들이 줌미팅 사용법, 출석체크, 수강신청과 철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 금강아카데미 및 법정 예방교육 수료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좋은 학점을 받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 학기 중간이 아닌 학기 초부터 멘토와 연결될 수 있도록 디딤돌 파트너십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 학습 상담 모습

외국어 능력자가 된 초석

김수림(행정학과)

◆ 프로그램명 : 파트너십 프로그램(금강어학원)

금강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과 같이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 제도와 시간을 정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십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선배들이나 친구들로부터 경험을 들어본 결과, 룸메이트는 생활습관이나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경우 서로 맞춰나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기에 저는 한국인과 룸메이트를 하되, 외국인 친구들과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1학년 1학기부터 현재 3학년 2학기까지 매학기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국 친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1학년 1학기 파트너는 브라질에서 온 Selina였고, 필리핀에서 온 Christine, Lian, 그리고 올해는 멕시코에서 온 Fernanda, 대만언니 Bay, 프랑스인 Betty언니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동안 몰랐던 세계 곳곳에 녹아있는 사회와 문화, 그들의 사고방식 등을 접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외국인들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기 초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가 뜨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언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분되어있고 신청한 언어로 그 외국인 친구와 대화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 언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또한 가능합니다.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을 살펴보면 브라질, 프랑스,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금강어학원에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외국인 친구들에게 그 나라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해당하는 외국어 연습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1시간정도 파트너십 활동을 하게 되고,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학교에 다닐 땐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만 올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zoom을 이용해 화상통화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금강대의 최대 장점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보통 이렇게 외국인과의 대화를 나

눌 수 있는 기회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전화외국어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비용 또한 상당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이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문화를 공부하고 사랑하기에 친구가 되기가 더욱 수월한 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멕시코에서 온 Fernanda(페르난다)언니와 영상통화로만 만나다가 서로 실제 대면으로도 만나고 싶어서 방학에 같이 만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멕시코 죽은 자들의 날 기획전>에 간 것입니다! 멕시코인과 멕시코 축제 기획전을 갔기에 직접 현지생활과 축제에 얹힌 유래와 풍습 등을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찍으면서 예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방학에는 대만에서 온 Bay언니와 직접 만나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금강대학교의 “파트너쉽 프로그램”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외국 친구들과 교류를 통해 국내에서도 해외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삶의 범위를 넓히고, 보다 개방적인 사고로 꿈의 무대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파파고, 구글 번역기와 같은 통번역 시스템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을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 안에는 그 나라의 문화, 사고방식, 생활 습관 등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두 주입식 교육을 통해 문법, 독해, 쓰기와 같은 영어에 집중하기에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학년 때 영어 실력은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라 입을 떼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연습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았습니다.

금강대학교의 파트너쉽을 활용하기로 다짐한 이래로, 1학년 때 배운 영어회화로 자신감을 얻었고 2학년 때는 “아시아의 펠팅팟”이라고 불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외국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신나는 교환학생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자신감으로 국제 축제에서 한영 영한 통역봉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골랐던 중국어 또한 금강대학교 중국인 친구들과 연습했고, 중국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 정부로부터 학비와 기숙사비, 용돈까지 지원받고 어학연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외경험으로 국제무대에 관심이 생긴 저는 국제기구의 공용어인 프랑스어를 섭렵하기로 다짐하였고, 3학년 때는 파트너쉽으로 Betty와 프랑스어를 연습한 결과, 이제는 다른 프랑스 친구들을 만나도 서너 시간씩 프랑스어로만 말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외국어 회화를 연습하려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모여서 외국어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이 없다보니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흐지부지 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이를 진행해야 외국인 친구들이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일정 때문에 미루고 싶을 때도 있

었지만 학교에 증거를 제출해야하기에 나태해지지 않고 꾸준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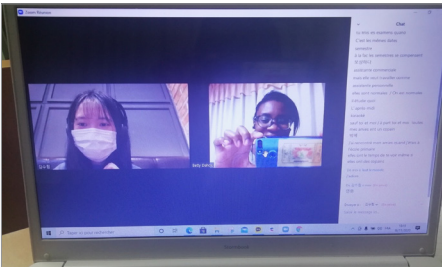
코로나가 끝나면 그동안 아무데도 가지 못했던 그 마음이 “여행에 대한 열정”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나라를 가서 예쁜 관광지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실제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현지 체험을 할 때, 진짜로 그 나라를 100% 느끼고 오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언어를 연습한다면 시야를 넓히고, 여행을 가더라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금강대학교의 파트너십을 참여해서 우리 함께 글로벌한 사람이 되어보아요!!



멕시코인 페르난다 언니와 <멕시코, 죽은 자들의 날> 전시회



대만인 베이 언니



프랑스인 베티 언니와 화상통화 장면

장려상

① 맛있는 지식을 배우다, 모의투자 실전!

김동원(행정학과)

◆ 프로그램명 : 돈이되는 생각을 하자, 모의투자 실전(교수학습지원센터)

② 색(色)보다 더 다른 색(色)

강동훈(국제통상통역학과)

◆ 프로그램명 : 퍼스널컬러컨설턴트_나만의 색을 찾아서(교육역량관리센터)

③ 장기전에서의 조력자

장예진(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

◆ 프로그램명 : 금강이음새 동반튜터링(교수학습지원센터)

④ 또 다른 언어

이은정(사회복지학과)

◆ 프로그램명 : 손으로 전하는 내 마음(교육역량관리센터)

⑤ 영알못에게 매우 유용한 비교과

서건희(불교인문학부)

◆ 프로그램명 : 영어인증제(교양교육센터)

⑥ 나는 100% 해냈다

서혜주(사회복지학과)

◆ 프로그램명 : 온라인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득과정(취창업지원센터)

⑦ 실전보고서 작성법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글쓰기 비법

김예찬(불교학과)

◆ 프로그램명 : 나도강사_실전 보고서 작성법(교육역량관리센터)

맛있는 지식을 배우다, 모의투자 실전!

김동원(행정학과)

◆ 프로그램명 : 돈이 되는 생각을 하자, 모의투자 실전(교수학습지원센터)

맘스터치 싸이버거 세트를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전역 후 2020년 봄, 전 싸이버거에 빠져서 일주일 내내 싸이버거 세트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피시방도 다니다 보니 한 달에 30만 원은 그냥 없어지더군요. 그때 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다간 군대에서 모은 돈을 다 써버려서 싸이버거를 못 사 먹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 생겼죠. 내 돈이 다 떨어지면 눈치 보며 용돈을 타야 하니까요. 아버지는 용돈을 줄 때마다 늘 사용처를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에 쓸 거냐? 쓸데없는 데에 돈 쓰면 안 돼.” 저는 자유로운 금전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매일 싸이버거 세트를 먹겠다고 아버지께 말할 순 없었습니다. 여윌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라는 질문엔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마땅한 자리가 없었고 공장은 여름에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경제 관련 책을 많이 빌려 읽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논산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간이 도서관을 이용했는데요. 지금은 뜨거운 감자인 주식이지만 소식을 전하더군요. “학생 제안 프로그램 공모전이라는 게 있다는데 참가만 해도 만 원을 준이때 간이 도서관엔 주식 관련 책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경제 지식 책만 있었고 전 그것들이 도움이 될 거란 막연한 기대감에 그저 빌리고 읽었죠.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써먹지... 자격증을 따야 하나?’라는 고민과는 별개로 시간은 지나가고 2학기가 다가왔습니다. 그즈음 한 친구가 제게 이런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만 원!’ 아니 ‘주식!’이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번뜩였습니다. 정보를 어디서 얻을지 몰라 난감했던 주제였는데 2학기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연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다! 저는 곧장 비교과 제안서를 만들었고 교직원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실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강사님 또한 교직원분들이 고생하시며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성되고 참가하게 된 ‘돈이 되는 생각을 하자, 모의투자 실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떠올린 이유와 참가한 이유는 같습니다. ‘돈이 되는 지식을 배우고 싶다.’ 그동안 경제 이론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어떤 관계이며 이런저런 법칙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돈과 곧바

로 연결하기에는 너무나 멀어 보이는 지식이었습니다. 제게는 '돈'이 되는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곧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맛있는 지식'이요.

'돈이 되는 지식을 배우자, 모의투자 실전'의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초보자가 곧바로 실제 돈으로 주식을 한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핸드폰 앱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모의투자를 이용해 투자에 대한 개념과 경제에 대한 감각을 차근차근 키워보자는 방향을 기획했습니다. 일종의 튜토리얼이죠. 첫 수업에서 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의투자를 한 6개월 해보고 지속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때 실전 투자를 계획 해보세요. 그전까지는 경제와 투자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에 소질 없을 수 있어요. 모의투자를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땐 그냥 실제 주식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모의투자를 하는 학생들이 선불리 투자를 시작할까 봐 걱정을 해주신 것이죠. 정말 친절하시죠? 그럼 나머지 전체적인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래의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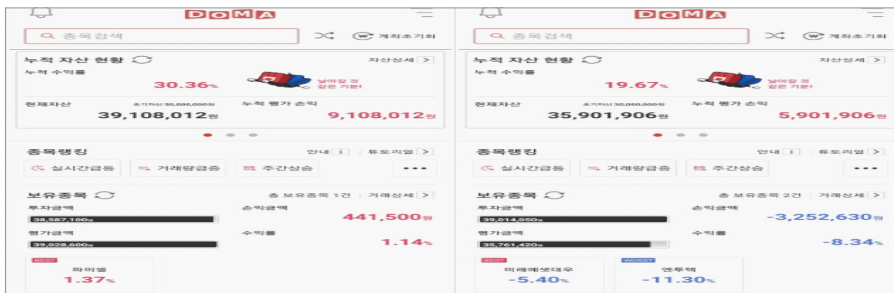
2020-2학기) [비교과] 돈이 되는 생각을 하자, 모의투자 실전 (01반) ▾									
강의수강									
1	2	3	4	5	6	전체강의			
1	[1회차] 기본 : 마인드 및 규정 분석					(학습기간: 20.11.04 ~ 20.12.23) ▾			
2	[2회차] 주식투자 종목에 대한 재무분석 : 회사 사업성					(학습기간: 20.11.09 ~ 20.12.23) ▾			
3	[3회차] 주식투자 종목에 대한 차트분석 : 기술적 분석					(학습기간: 20.11.17 ~ 20.12.23) ▾			
4	[4회차] 주식투자 종목에 대한 재료분석 : 종합 분석					(학습기간: 20.11.24 ~ 20.12.24) ▾			
5	[5회차] 좀 실시간 강의 : 학생 모의투자 결과 피드백					(학습기간: 20.12.10 ~ 20.12.22) ▾			
6	만족도 조사					(학습기간: 20.12.23 ~ 21.01.15) ▲			

총 강의는 네 번의 주식 투자 강의와 모의투자 피드백 1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회차에서는 앞에서 서술했던 '선불리 투자하지 마라. 모의투자 연습을 많이 하고 실전으로 들어가라.' 같은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알려주셨죠. 더불어서 조심해야 할 주식 거래소 규정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 2, 3, 4회차에서는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지 배웠습니다. 5회차에서는 강사님이 모의투자 거래내역 피드백과 Q&A를 해주십니다. 정말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에 얹힌 이야기는 이따 자세히 서술했보겠습니다.

강사님은 이렇게 전체적인 회차에 걸쳐 주식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더불어 주식 종목을 분석하는 여러 관점을 알려주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식의 핵심. 바로 자기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업부터 제대로 알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 정보를 찾고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분석법을 활용해 기업의 재무, 그래프까지 본 뒤 다

괜찮다 싶을 때 투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뛰어난 투자자인 피터 린치조차 던킨도너츠처럼 자기가 잘 이용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듣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자신에게 익숙한 기업부터 분석하고 이해하며 투자하라는 것. 지금도 도움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의투자를 하며 위의 감명 깊은 지식을 열심히 활용했을까요? 부끄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났습니다. 투자 수익이 많이 난 사람에게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걸 얻기 위해선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분석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기업은 피했습니다. 저는 일종의 테마주라고 하는 기업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소문이나 기업의 분야만으로 확확 오르고 확확 꺼지는 종목을 찾아다녔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소문만 쫓고서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30%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멍했죠. ‘어? 이 방법이 맞는 건가? 어쩌면... 나는 타고난 승부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소문에 사고, 팔고를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래는 11월 말의 계좌가 12월 초에 어떻게 변해가는지 바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간다고 하죠? 돈이 없어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져 더 이상한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거의 수익이 없어졌죠. 다행히 강사님은 거래내역을 제출한 모든 학생에게 상품을 주셨습니다. 한 편으로는 아주 부끄럽고 씁쓸했습니다. 정석이란 것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실제 돈이었으면 얼마나 아꼈을까요? 사실 30%의 수익을 본 직후 자신만만해져서 실제 주식 계좌를 만들어 소액으로 주식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참패였습니다. 강사님께선 수업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뇌동매매하지 말라.’ 투자원칙 중에 지켜야 하는 최고의 말이라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해 근거 없이 막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식에서 이익을 보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 종목을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와 어느 가격에 살지 어느 가격에 팔지를 미리 생각하고 파는 이유조차도 생각

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의 주식을 사는 근거가 '소문'이라면 운이 좋아서 처음에 이익을 볼 순 있더라도 대부분의 소문은 '낙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번 돈을 다 반납하게 됩니다. 저처럼요! 함정에 빠져보니 감사님이 말씀하신 투자의 길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 정석은 답답한 길이 아닌 올바른 길이라는 것ですよ. 이제는 개인적으로 기업 분석을 하며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카페에 쓴 글인데요, 요즘 뜨거웠던 삼성전자가 정확히 어떤 물건을 파는지 계열사에는 뭐가 있는지 분석한 글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을 위한 기업 분석 및 계열사 (참고용)

연세대학교 교수님

2023.10.16. 16:00

삼성전자 재무제표는 네이버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전자가 대해 할 때는 회사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계열사들 갖고 있는지 소개하는 글이 되었습니.

본 글은 <http://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 -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집, DART
순회 회사명 (보고서명) 한국가스공사 경영(당장)보통(당장) 2 이사회 경영(당장)보통(당장)
dart.fss.or.kr

에서 2020.9.30 분기보고서에서 갖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파는 것

CE 부문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HM 부문	HMP, 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 등

삼성전자는 어떤 계열사를 갖고 있을까?

- 삼성전자가 한강 등 막 어떤 종류이 증권장이 오픈하고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삼성전자가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열사가 훨씬 더 많아보였습니다.

(상장사명)

삼성물산주	1101110019762
삼성전자주	1301110006246
삼성에스디아이주	11011103394174
삼성전기주	1301110001626
삼성화재생명보험주	1101110000978
삼성중공업주	1101110168595
삼성생명보험주	1101110005953
삼성생명주	1101110007992
삼성증권주	1101110339649
삼성에스디에스주	1101110398556
삼성카드주	1101110348901

제가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던 이유는 투자 실패 경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5회차 수업인 피드백 및 Q&A에서 저의 부족함을 더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수업에선 첫 번째로, 학생들이 낸 모의투자 거래 내용을 보고 대강의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학생이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며 이 시기에는 시장이 좋아서 뭐를 사든 잘 올랐을 거라고 날카롭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죠. 강의에서 말했다t 6개월은 더 모의투자를 해보며 안 좋은 시장 시기도 겪어보고도 결과가 괜찮다면 주식 투자를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만심에 바로 실제 투자를 시작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건 결국 지금 시기가 아주 좋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운이 었다는 게 드러났던 순간이죠. 두 번째로,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의투자에서 운이지만 나름대로 수익도 보고 실제 투자도 시작한 제가 그때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예상해보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주식값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때 오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기업을 분석하는 법이나 거래소 상장 폐지규정은 알았어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강사님조차 놀라셨죠. '아니 모의투자를 몇 주차 해봤는데 이런 지식도 없단 말이야? 조금만 스스로 공부해보면 답이 나올 것을...'이라는 생각을 하시며 어이없는 웃음을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사님은 좋은 질문이라며 친절하게 대답해주셨습니다. 주식값의 원리는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떠올려보면 된다고 하셨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값이 오르고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값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 기업의 주식을 마구 사려고 합니다. 그때 주식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빨리 가져가기 위해 기존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사려 합니다. 그렇게 점점 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저는 그때야 주식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했고 공부를 덜 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뎌 없이 시험 보러 가기,’ ‘총 없이 전쟁터 나가기.’ 참 무모했습니다. 그렇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에도 제 모습이 어울려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부딪히면서 오히려 더 빠르게 습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최고 장점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무리 막무가내인 저라도 적어도 길이 보여야 ‘한번 가볼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야 주식 열풍이 불면서 주식에 대한 인식이 꽤나게 바뀌었지만, 저조차도 반년 전에는 ‘주식 그거 약간 도박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이었고 주식은 많은 공부가 필요한 돈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사실 유튜브에는 이미 주식에 대한 정보가 꽤 있긴 했습니다. 아예 지식이 없을 때는 그것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어 선불리 다가가기 어려워서 문제였죠. 지금은 유튜브에서 괜찮은 정보들은 쪽쪽 골라 배웁니다. 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길을 보여주고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제일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웬만한 학우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들어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 주식에 뛰어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장만 다를 뿐 우리는 이미 돈의 전쟁터 위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돈’이란 게 대강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문제로 세상에 이만큼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죠. ‘정치’가 ‘투자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았는데요. ‘정치’는 뭔가 모호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의 관점으로 보니 더 가까워 보이게도 됩니다. 강사님은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식은 종합예술이예요. 어떤 종목이 흥할지 망할지 알려면 경제는 당연히고 정치 문화 예술 과학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겨울에는 동물 콜레라가 잘 발생한다!’라는 과학 지식이 있으면 겨울이 되기 전에 콜레라 관련 약을 만드는 회사를 찾아보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세상과 부딪히는 지식은 더 와닿고 머릿속에 더 잘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내가 어떻게 해야 나중에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을지 쉽게 안 잃을지 재테크를 어떻게 할지도 쉽게 생각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경제, 금융, 정치’ 같은 부분조차 돈과 연관돼서 어떻

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돈에 관해 관심을 보이고 공부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세상의 흐름에 묻혀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에 금융 서적 <FAKE>(로버트 기요사키)를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기도 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글을 썼죠. “진짜 금융 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은 다음 같은 말을 입에 담고 살며 허송세월하게 된다. ‘나는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럴 형편이 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한다면 당신의 뇌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해결책, 그리고 기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저는 이 주식 강의가 저에게 그 ‘어떻게’를 알려준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금융 지식에 첫 발걸음을 내디더 본 것입니다. 뒤편 첫 발걸음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나 더 갈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제게 ‘돈’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준 정말 맛있는 ‘맘스터치 싸이버거 세트’를 만났고 이런 좋은 기회를 준 ‘학생 제안 공모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실제 주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왕 발을 들인 거 계속해서 해보고 있죠. 몇몇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한 까닭인지 아니면 또 운이 좋아서인지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벌진 못했지만, 싸이버거 세트를 살 돈은 되더군요! 오랜만에 집 밖을 나가 봤습니다. 맘스터치에 도착해 주식에서 처음으로 번 돈으로 싸이버거 세트를 결제했습니다. 싸이버거를 한 입 먹었을 때의 그 느낌이란…! “아…, 맛있다!” 정말 제가 그동안 먹었던 어느 싸이버거보다 맛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엔 아마 제 열의가 담긴 ‘맛있는 지식’이 녹아들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맛있는 지식’을 배우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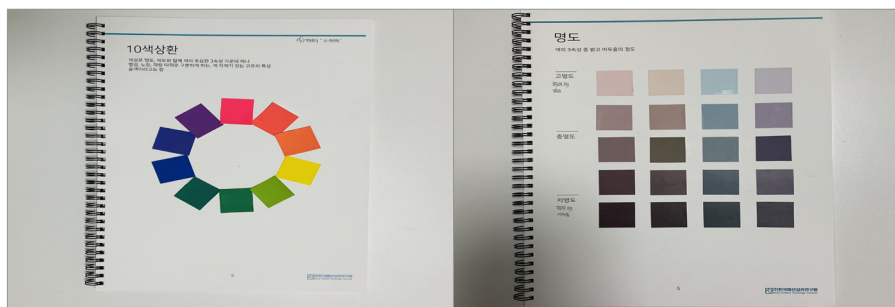
색(色)보다 더 다른 색(色)

강동훈(국제통상통역학과)

◆ 프로그램명 : 퍼스널컬러컨설턴트_나만의 색을 찾아서(교육역량관리센터)

우연히 교내에서 진행하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_나만의 색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색과 관련된 강의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예전부터 색상, 디자인, 사진 등 예술과 관련된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다. 특히 교내 협합동아리 “리리커즈”에서 활동하면서 취미로 힙합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졸업을 앞두고 나만의 개인앨범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앨범 커버(사진)나 전반적인 디자인 요소에 있어서 색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전공과는 관련이 적기도 하고, 주변 환경에서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쉬움만 남았다. 마침 이렇게 기회가 되어 색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음에 지금까지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_나만의 색을 찾아서」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절묘하게 결합된 블렌디드(blended)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주간 진행된다. 처음 3주차는 (사)한국패션심리연구원의 제휴를 통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색에 대한 기본이론을 배우며 이해도를 높하게 된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색의 3원색, 빛의 3원색, 명도, 채도, 조색, 배색 등 다양한 이론을 접하게 된다. 기초 과정임과 동시에 퍼스널 컬러를 배우기 위한 사전학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기 위주로 강의가



〈자료1〉 온라인 교육 과정

진행되었다. 온라인 강의를 보고 직접 실습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5만원 상당의 키트를 집으로 보내 주는 점은 아주 매력적이었다. 키트는 조색을 할 수 있는 물감세트와 컬러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해 강의에서 배우는대로 실습을 진행하면 된다. 보기에는 쉬어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감의 농도나 물의 농도 등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3주간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교내에서 대면강의를 실시하게 된다. (사)한국패션심리연구원의 서울지사 원장님께서 직접 출강하시기 때문에 강의의 질이 매우 높다. 약 7명 내외의 학생들과 함께 대면수업을 진행하는데, 원장님께서 3주간의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한명씩 해주신다. 또한 보충설명과 함께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다. 대면 수업의 백미는 원장님께서 직접 진단해주는 퍼스널 컬러 진단에 있다고 본다. 물론 이전에도 교내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하지만 더욱 특별한 점은 우리가 배운 이론과 접목하여 이해할 수 있을뿐더러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션, 뷰티와 관련지어서도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퍼스널 컬러는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8가지로 나누어 판단하게 된다. 나는 그중에서도 “Autumn mute”톤으로 진단받았다. 흔히 가을과 관련된 색과 톤을 의미하며,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퍼스널 컬러 카드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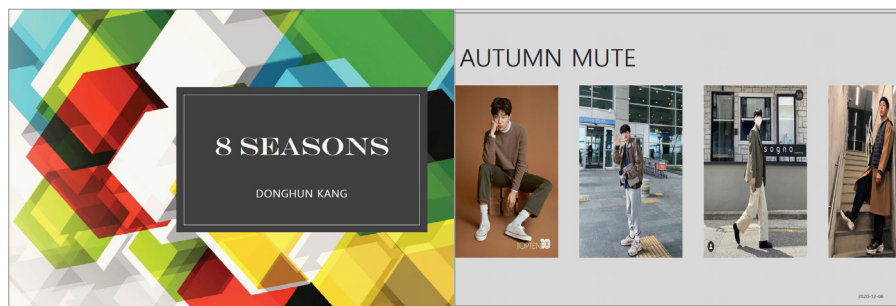
대면수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다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첫 3주차가 강의 중심의 학습이었다면 남은 3주차는 원장님과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강의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ZOOM을 활용한 강의의 가장 큰 주안점은 자신의 퍼스널컬러를 포함한 총 8가지로 분류된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이해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직접 적용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원장님은 우리에게 직접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것을 주문하셨다. 이에 대한 토의 및 피드백은 마지막 주차인 7주차에 진행되었으며, 5주차와 6주차에서는 색의 체계부터 퍼스널 컬러 이론 그리



〈자료2〉 퍼스널 컬러 진단 카드

고 이것이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 보면서 실천위주의 강의가 진행된다. 6주차에서는 취업면접을 대비한 자세, 표정, 복장 등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서는 매우 유익한 내용들이었다. 특히 모든 ZOOM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생들의 뷰티나 화장법, 코디 등에 대해서 일대일 상담을 해주시는 시간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뿐더러, 그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마지막 주차에 진행되는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끝으로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_나만의 색을 찾아서」 과정을 종료하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에 열릴 예정인 자격증 대비반에서 심화된 학습도 가능하다고 하니 나중에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_나만의 색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다른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자신의 흥미나 적성 혹은 진로 탐색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대학은 대부분 인문계열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자신의 전공 혹은 장점과 연결 지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자신의 지식이나 아이디어와 색과 관련된 내용을 결합하면 신선한 사업아이템 혹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융·복합 시대인 만큼 하나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 특히 색상 등과 관련된 예술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은 추후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셋째, 미적 감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같은 레포트, 같은 프레젠테이션, 더 나아가 같은 옷을 입더라도 더 미적이고 아름다운 것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_나만의 색을 찾아서」 프로그램에서 학습하는 색의 배합, 배치 혹은 디자인 하는 감각들은 다양한 곳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3〉 퍼스널 컬러 포트폴리오

이번 프로그램을 듣기 이전까지는 색에 대해서는 어렵듯이 “예쁘다”, “색감이 좋다” 정도의 이해만 있었다. 하지만 명도와 채도 그리고 톤과 조색 등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물감으로 익히다 보니 색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감각적이고 체계적인 시야를 갖게 된 것 같다. 아직 전문적인 과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듯이 느끼는 것이지만, 기초 강의만으로도 큰 성장을 하게 되었다. 특히 좋았던 점은 색을 공부함과 동시에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패션, 이미지, 인테리어 등의 분야로 확장해볼 수 있는 강의라는 것이다. 단순히 “색은 명도가 어떻게 채도가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강의 중간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들과 이미지들 그리고 영상 소스들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색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

요즘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자체제작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의 흥미와 전공 그리고 환경이 모두 일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이 진행하는 이러한 강좌와 프로그램들은 환경적인 한계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선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대학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대학만족도 향상과 자기계발 촉진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존재했다. 하나는 전문자격증과의 연계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한다. 즉, 내가 퍼스널 컬러 전문가라고 아무리 외쳐도 자격증이 없다면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에 또 다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학습기간을 길게 배정하더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 진행되는 대면수업의 경우, 교통편 제공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대면수업이 어떻게 보면 강사님을 직접 뵙고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을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또한 필수참석을 해야 하는 점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집이 멀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의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기회를 환경적인 이유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통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더 많은 지원자가 생기고, 임하는 열정 또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대학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끝.

장기전에서의 조력자

장예진(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

◆ 프로그램명 : 금강이음새 동반튜터링(교수학습지원센터)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렵고 무거워 보이는 주제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대해 가르쳐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일단 사양부터 하기 마련이다. 그 이유를 물으면, '가르칠 실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나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1학기 금강이음새 학습튜터링 활동을 시작할 때 학우들이 나에게 찾아와, 너의 영어 실력을 빛내 달라며 자기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나 또한 가장 먼저 한 말이 "너네한테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 아니야"였다. 하지만 친구들이 해주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야. 우리 같이 공부하자는 뜻이야."였다. 그렇게 금강이음새 활동에 튜터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1학기 때 금강이음새 학습튜터링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가르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나는 친구들의 부탁으로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만 알려주자고 생각하고 참여했던 활동이지만 나 스스로에게서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학기 때 배운 점이 정말 많았던 활동이기 때문에 금강이음새 동반튜터링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참여한 금강이음새 동반튜터링은 '학생들의 지식이 서로 이어져 새로운 배움을 만들어 낸다'는 뜻으로,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금강이음새 활동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목표설정 등에 성취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팀워크 기반 프로그램이다. 나는 같은 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후배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2019년부터 둘 다 전공과목을 함께 수강하기 시작하며 공유하고 의지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동반튜터링 활동이 우리의 학업에 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우리는 '국제통상'이라는 과 특성과 전공 지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여 통상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과목에 조금더 집중하여 매진하기 위해 교과목 분야로 지원하게 되었다. 게다가 대면강의를 진행하고 있을 당시에는 함께 도서관에 간다거나 수업을 직접적으로 같이 들었기 때문에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훨씬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었고 우리 둘다 비대면 강의로부터 큰 벽을 느꼈다. 우리 전공 과목은 다른 전공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소 실생활에서 접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 강의를 들으면서 이를 이해하기에는 더더욱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강이음새 동반튜터링을 활용하여 함께 공부를 하다보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전 성적을 반영하여, 함께한 친구는 이번학기 전공성적 평균 3.5를 넘어야 하고 나는 평균 3.8을 넘어야 했다. 금강이음새 활동을 1년 동안 해보면서 두 번 다 느낀 점이지만 기준이 참 높다...솔직하게 말하자면 전체 성적이 아니라 전공 과목 4개의 평균 성적이 3.8을 넘기란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

우리가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은 공통적으로 국제운송론, 국제경영학, 동북아지역경제연구가 있고 나는 추가적으로 미디어로 보는 중국이라는 과목까지 총 4개를 공부해야 했다. 과와 학년이 비슷하다 보니 우리는 겹치는 과목이 전공과목 뿐만 아니라 영어 졸업인증 과목도 겹쳐서 이 부분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었다. 함께 참여한 학우는 경제 이슈나 무역이론과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부분을 보였고, 나는 세계 경제와 전공 지식, 그리고 영어에서 강한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며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어가며 활동을 지속했다. 특히 이번학기의 경우, 전공과목에서 발표라거나 레포트 작성과 같은 난이도 높은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서로 피드백을

1. BCG분석이란?

BCG란?

BCG정의

기업정보 회사분석

Market Growth Rate

High

Star

Question Mark

Industry Average Growth Rate

Low

Cash Cow

Dog

Relative Market Share

High

Low

- 스타 : **성공사업**, 수익성과 성장성이 크므로 **계속적 투자** 필요
- 캐시카우 : **수익 창출원**, 기존의 투자에 의해 수익이 계속적으로 실현 되므로 **유지 보수** 차원에 머물게 되어 **투입보다 산출**이 많음
- 물음표 : **신규사업**,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점유율**과 높은 **시장 성장률**을 가진 사업으로 기업의 행동에 따라서는 차후 스타 사업이 되거나 도그 사업으로 될 수도 있다.
- 도그 : **사양사업**, 성장성과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철수** 고려

SAMSUNG

[금강이음새 동반튜터링 활동 모습]

주고 받으며 진행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 1학기 금강이음새 활동을 해보았기 때문에 너무 목표만을 향해서 아등바등하지 않는 점과 모든 목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는 점을 기본 모토로 삼았다. 우리는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다보면 우리가 전문지식 함양을 고취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목표가 흐려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전공지식을 쌓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결과는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공 과목 공부도 장기적으로 바라보자고 의견을 합쳤다.

이번 학기의 경우,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에 매지한 과목은 국제운송론과 국제경영학이었다. 국제경영학의 경우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려운 부분의 경우 서로 자료조사를 해보고 얻은 부분을 공유하며 공부를 하기도 했다. 게다가 금강이음새 동반튜터링을 함으로써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경영학 교재를 구비할 수 있었고 교재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좋은 성적을 얻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레포트를 써야할 때, 후배는 미디어를 활용한 자료조사에 능했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자료를 공유했고 나는 이전에 우리가 배운 과목에서 다루었던 주제나 교재에서 연관있는 내용을 찾아 연결 짓는 방법에 능했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부분을 공유하며 상부상조할 수 있었다. 특히, 국제경영학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레포트 형식이었는데 이 때 이 방법이 매우 유용하게 쓰였다. 후에 알게 된 이야기이지만 인터넷에서 자료를 많이 활용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는데 이전에 배운 과목에서 사용했던 전공 교재를 활용하여 레포트를 쓴 우리는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다행히 우리의 목적의식이 순수했으며 열정이 있었던 덕에 우리 모두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이번학기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사실 나는 이번 1년동안 금강이음새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이 정말 많다. 나는 학업 경쟁이 매우 심

2020-2 국제경영 기말고사_201761108 장예진<

<출처><

김창수, 이우경. (2011).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조직구조, 조직문화 간 적합성에 관한 연구. <

삼성경제연구소. 2014.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고용전략'<

글로벌경영 제 9 판 (장세진)<

국제마케팅 제 5 판 (김주현)<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한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영사례 (정진섭)<

[국제경영학 기말고사에 활용한 자료 내역]

▶ 학기선택 : 2020년 2학기 ▼

이수구분	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평점	담당교수
전공	CM10014	동북아지역경제연구	3	A-	이승모
전공	CM10015	국제운송론	3	B+	정문기
전공	CM10082	국제경영학	3	A+	박준성
교선	CS05970	현대사회의 공익과 공공인재	2	A+	손세훈
졸인	CS05978	일본어 분석적 읽기	2	A0	정강철
전공	CT10017	미디어로중국어보기	3	A+	강소연
졸인	GR10053	영어 분석적 읽기와 토론	2	A+	포리
신청과목수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평균	미취득과목수	미취득학점
7	18	18	4.0		

[2020년 2학기 성적 결과]

한 지역에서 자라왔다 보니, 같은 반 친구들끼리 자신이 공부한 내용이나 진도, 자료 등을 공유하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도 내가 공부한 것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얼마나 공부했는지 숨기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특히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며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게다가 앞에서 말했듯, 가르치는 수준이 안된다는 점에서 큰 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우리끼리 모여봤자 시간낭비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보는데, 이는 정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각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있다. 나이와 학업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 당연히 완벽한 파트너가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수록 구성원 모두 과한 점수나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잡고 그 과정 속에 금강이음새가 존재할 뿐이고, 금강이음새가 약간의 조력자 혹은 방향키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과도한 목표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부터 금강이음새 활동은 그 사람에게 큰 부담과 압박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고, 이 활동 자체에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강이음새활동의 의의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의 금강이음새 활동 참여자들에게 내가 말한 부분을 꼭 염두해 두고 활동하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한 비교과 활동을 신입생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신입생때부터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꾸며왔던 나는 이러한 비교과 활동조차도 후에 자소서에도 쓸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혹은 대기업 입사 등을 위해서 공부와 스펙쌓기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지만 되돌아보았을 때, 학교생활이 다채로운 것도 경험이고 그 경험이 마음의 양식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금강이음새 활동은 그 장기전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신있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언어

이은정(사회복지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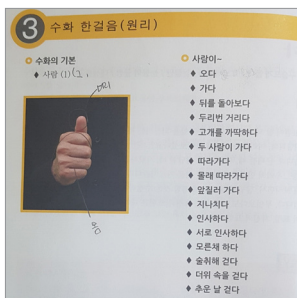
◆ 프로그램명 : 손으로 전하는 내 마음(교육역량관리센터)

길어진 코로나19로 인해 무료하고 지친 일상을 보내던 날, 습관처럼 들어가던 학교 홈페이지에서 2020-2학기 온라인 RC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다양한 소품 공예를 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와 교과목 외 개인의 관심사와 연결할 수 있는 여러 일반과정 수업이 있었다. 원데이클래스는 총 6가지 공예를 정해진 날짜에 하나씩 배울 수 있었고 원하는 공예를 선택해 하루만 투자하면 되기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다. 일반과정 수업은 5회기~10회기로 운영되었으며 정해진 요일과 시간마다 수업을 듣는 방식이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지만 그만큼 자세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나는 일반과정 중 '손으로 전하는 내 마음(기초수화반)'을 수강하였다. 나에게 수화는 다른 언어였고, 외국어와 같다고 느꼈기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강의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내가 용기를 가지고 수화를 배우게 된 계기는 잠깐이었지만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 때문이었다. 집 근처 요양원에서 봉사하던 중 청각장애인 할머니 한 분을 뵈게 되었다. 산책을 도와드리는데 할머니께서는 청각장애를 앓고 계셨고 말을 하지 못하셔서 수화를 사용하셨다. 나는 수화를 사용할 일도 배울 일도 없었기에 종이를 사용해서야 간신히 소통할 수 있었다. 잠깐의 산책이었지만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 그 후로도 봉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농인을 볼 수 있었다. 요양원 봉사를 계기로 수화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저분들에게 더 좋은 말, 더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기회로 수화 공부에 도전할 수 있었다. '손으로 전하는 내 마음'은 매주 화요일 19시~21시로 총 2시간씩 10회차를 진행했다. 학교 수업은 대체로 녹화 강의로 진행되었기에 프로그램 시간과 겹치지 않아서 듣기 좋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공간과 옷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 부담감을 줄여주었다. 그렇게 학교 덕분에 지루하고 무료하던 일상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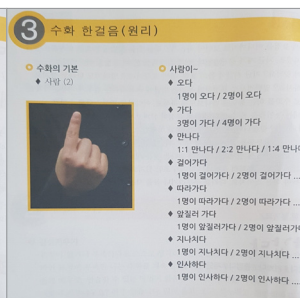
수업은 화상 프로그램인 Zoom으로 진행했다. 첫날 수업은 표정이 많이 굳어있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에 이미 내 표정은 굳어있었고, 화상이었지만 누구 앞에서 손을 움직이고 다양한 표정

을 짓는 것이 부끄럽고 어색했다. 처음은 기본적인 지화와 지숫자에 대해 배웠고 내 이름과 생년월일을 수화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여러 모양으로 움직이는 게 힘들었고 근육도 많이 굳었다. 그래도 내 이름과 생년월일을 수화로 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수화의 모든 것을 다 배운 기본이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이름을 쓰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수화를 할 때는 손으로 정확한 수화를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표정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했다. 의문문에서는 눈썹을 치켜세우고 기본이 좋으면 미소를 짓고 슬프면 울상을 짓는 등 여러 가지 표정이 필요했다. 평상시에 표정이 다양하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표정을 짓는 게 힘들었고 강사님도 일반 사람들은 다양한 표정을 짓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하셨다. 코로나 19의 이유로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직접적인 대화보다 SNS로 대화를 하는 것이 편해진 현대사회의 폐해라고 생각했다. 그 부분은 매우 아쉬웠고 그 후로 다양한 표정을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수업을 듣기 전 얼굴의 근육을 풀고 수업에 참여했고 옆에 거울을 두어 수시로 표정을 확인했다. 꾸준히 노력하니 표정도 자연스러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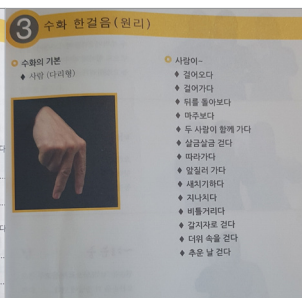
처음 배웠던 수화는 재밌는 점들이 많았다. 수화라는 농인들의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마이크는 끄고 수업을 했고, 출석 체크도 강사님이 학생의 이름을 수화로 하면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보고 손을 드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할 때면 모든 학생이 강사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재밌었다. 항상 수업이 끝날 때면 수화로 다 함께 인사를 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다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할 때면 오늘도 새로운 단어를 배운 것이 특별한 듯했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수화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접고 엄지를 머리, 나머지를 몸으로 생각하여 표현했다. 손가락으로 사람을 표현하는 게 어려웠다. 사람으로 표현한 손가락 모양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면 '오다', 반대로 멀어지면 '가다'를 나타냈고, 양손으로 마주 보고 기울이면 '서로 인사하다'를 나타냈다. 그 외에도 사람을 나타내는 수화는 <그림 2>, <그림 3>과 같이 검지, 검지와 중지를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다리를 나타냈다. 대



〈그림 1〉



〈그림 2〉



〈그림 3〉

부분의 수화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손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배우지 않은 단어도 그 의미와 모습을 파악하여 유추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 알게 된 한국어와의 차이점은 농인들은 이름을 말하는 대신 대부분 별칭을 지었고, 의문문에서는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단어를 맨 마지막에 말하는 점이였다. 예를 들면 ‘몇 시에 밥 먹을래?’를 수화로는 ‘밥, 몇 시?’로 표현했다. 수화에 흥미를 느끼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표정은 이미 다양해져 있었고 매번 다음에는 무엇을 배울까 기대되었다. 수화 수업은 대부분 학교에서 제공해주었던 ‘누구나 배우는 더드림 수화’라는 교재로 진행했지만,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은 강사님 덕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2시간 동안 교재로 수업만 나가는 것은 지루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강사님은 학생들이 지루해지기 전에 짧은 영화, 다큐멘터리 등 농인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셨다. 영상은 농인의 삶의 어려움, 제약 등을 보여주었고 나에게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동기부여를 해주었다.

수화 수업이 중간을 향해가고 있을 무렵, 배운 수화를 사용할 기회가 생겼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주 오시던 아저씨 한 분이 계셨다. 매번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손가락으로 담배를 가리키셨다. 처음에는 귀찮으신가 하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언어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였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요양원에서 봤던 청각장애인 할머니가 생각나면서 그 손님께 내가 배운 수화로 인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막상 일상생활에서 쓰려고 하니 배웠던 수화가 전부 기억나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만 생각이 났다. 많은 단어가 기억나지 않은 것이 아쉬웠지만, 그 손님께 수화로 인사를 하니 웃지 않으시던 분이 환하게 웃으셨고 웬지 모르게 감동하신 것 같았다. 아주 작은 행동으로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고 일상에서 사용하니 학습효과는 두 배가 되었다. 그 후로 수화를 더 열심히 배워서 대화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새로운 바람이 생겼다. 다행히도 교재에는 한 파트에 여러 단어를 배운 후 그 단어



〈그림 4〉

를 활용한 대화가 있어서 복습 및 문장 학습도 동시에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많은 단어와 문장을 배우면서 수업은 끝을 향했다.

나는 한때 TV를 보면서 오른쪽 아래에서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화로 전달하는 사람을 보면서 시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소리도 들리기에 나에게 굳이 필요도 없었고 화면을 가리는 것이 신경 쓰여서 수화 방송을 하는 채널은 보지 않았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도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수화란 나에게 다른 세계였기 때문이다. 다른 세계를 처음으로 마주한 지금, 내가 했던 부정적인 사고가 너무 부끄러웠다. 나의 언어도 한국어인 것처럼 농민들에게 수어도 하나의 언어였다. 어쩌면 나의 또 다른 언어였다. 10주 동안 수화를 배우면서 처음과는 느낌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어려웠고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했던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 들지 않았고 새로운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많은 단어를 알게 됐지만 배웠던 수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수어는 '감사합니다.'이다. 감사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평범한 일상적인 단어지만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멋있고 따뜻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아주 평범한 말이고, 작은 행동이지만 그 사소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행복한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 사소한 행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기에 나는 계속해서 수화를 배울 것이며, 더 나아가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사회복지공무원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조금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이번에 배운 '손으로 전하는 내 마음'을 떠올리면서 농민들에게도 내 마음을 전할 것이다. 이번에 공모전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대답은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관심이 없었고 배우는 것을 주저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화는 당장 배울 필요가 없는 다른 언어였다. 당연하다. 아직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낼 수 있다. 수화를 모른다 해도 사는 데 전혀 지장은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을 들리지 않아서 소리를 낼 수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수화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이 간단하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수어는 알고 있으면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농민들은 삶의 힘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언어장애를 가진 아저씨에게 간단한 인사를 함으로써 느꼈던 따뜻함을 금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많은 학우도 용기를 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기회로 느껴봤으면 좋겠다.

영알못에게 매우 유용한 비교과

서건희(불교인문학부)

◆ 프로그램명 : 영어인증제(교양교육센터)

우리 학교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토익 점수를 일정 목표까지 도달해야하고 그것을 학교에 인증을 해야 한다. 혹은 비교과 중 하나인 영어인증제에서 GOLD반을 졸업하면 조건을 충족을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여 토익점수를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만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혼자 공부를 하면서 토익을 따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다. 요구하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쉽다고들 하지만 본인이 영어인증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한다. 정확히는 영어를 매우 못하지만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 한해서 추천을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학교는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성적만큼 따오거나 영어인증제 GOLD반을 졸업을 하는 것인데 토익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를 했으며 영어를 잘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아무 문제없이 스스로 공부하여 목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어를 포기하고, 영어를 매우 무서워하고,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토익을 공부하기에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을 포함해서 영어인증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쉽다는 것이다. 영어인증제를 운영하며 우리들에게 영어를 교육하시는 강가희 교수님께서서는 최대한 우리들이 속해 있는 반을 고려하여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신다. 교수님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얻은 노하우를 최대한 우리들에게 전수해주시려고 하며 학창 시절에 영어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번쯤은 들었을 거 같은 것들을 위주로 교육해주신다. 학교에서 하는 모의토익을 보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학기말 시험을 비교해서 난이도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토익보다 쉽게 성적을 얻고 졸업을 위한 조건을 쉽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추천이유는 달성성취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영어를 무서워했고 공부를 전혀 안한 일명 영포자들이 아닌 영어를 지금이나마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했다. 본인이 노력을 한만큼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에 적용이 될 것이다. 노력

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것에 대한 결과에 만족과 쾌감을 얻을 수 있다. 영어인증제는 본인이 언급한 영포자+나름 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보다 큰 쾌감을 준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영어를 대단히 못한다. 우리학교는 교필 중에는 외국인 교수인 램들 혹은 포리 교수님의 강의가 있는데 이를 강의를 하고 있을 때 대단히 괴로웠다. 영어에 대한 울렁증도 있고 오로지 영어로만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영어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에 빠졌었는데 영어인증제는 주 2회 강의를 하며 1일은 문법위주, 다른 1일은 스피킹 위주이다. 이를 통해서 본인은 아직 영어실력은 형편없지만 나름 영어로 하는 대화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감이 없어졌다. 또한 전혀 소통이 안되었던 영어실력이 나름은 버쩍이지만 소통 및 이해가 전혀 안되던 수준에서 나름 이해를 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에 나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문법, 듣기 및 독해 쪽에서도 나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았을 텐데 그때마다 나오던 영어 지문을 보면 정신이 혼란하고 땀이 나고 난리도 아니었다. 영어 듣기를 할 땐 귀에 물들어간 상태에서 동굴 속에서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고, 순 영어로만 있는 지문들을 볼 때에는 영어들이 외줄타기를 하듯이 날뛰는 것처럼 보였다. 그만큼 영어를 무서워했다. 지금은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이 문장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를 하는 정도가 되었으며 매번 영어 지문을 해석 할 때에는 본인이 이것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뿌듯함을 느낀다. 이러한 뿌듯함과 만족감을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다.

마지막은 상금을 준다. (^_^) 말 그대로 상금을 준다. 이걸 본인이 영어인증제를 1년 내내 들었을 때 2학기 때 생긴 것이다. 영어인증제 아무래도 토익보다 하기 쉽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참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문에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고 본다. 본인도 수업 내내 질문이나 답변을 제외하고는 마이크를 꺼두지만 여기서 말하는 참여도는 본 강의는 매 수업마다 단어시험을 보는데 그러한 단어시험이나 숙제 등을 대충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생긴 듯하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마다 단어대회 같은 것을 하는 데 그곳에서 1등에게 일정금액의 상금, 총 성적을 대비하여 1등에게 상금, 성적 향상이 가장 높은 학생들에게 상금 등 상금이라는 목표를 설정 해둬으로서 수업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해두었다. 물론 본인도 상금이 걸린다는 것을 보고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공부에 임하게 되었고 비록 상금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보다 높은 향상을 보인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앞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영어를 정말, 엄청나게, 너무 못한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에 대한 별 뜻도 없고 여러 핑계로 공부를 대충하였지만 지금은 대학생이며 어른이기에 본인의 앞길은 본인이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특히 남성들에게는 군대라는 장벽도 있다 보니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 중에서 영어는 세계 공통어이며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전혀 안하였고, 영어를 싫어하는 것을 넘어 혐오를 할 정도

있어도 지금이라도 시도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졸업에 필요한 조건이다 보니 이번 기회에 한번 영어 인증제를 시도 하여 영어 능력 향상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것은 본 수기공모의 주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 상담센터가 있다. 그곳은 학생들의 정신 감정을 해주며 상담을 해주는 것 말고도 본인들의 적성을 검사하여 진로에 대한 상담도 가능한 곳이다. 본인처럼 영어를 아예 포기를 했다면 편견이겠지 만 아마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며 뚜렷한 목표가 없다고 생각한다. 영어인증제를 이수하면서 한번 상담도 받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100% 해냈다

서혜주(사회복지학과)

◆ 프로그램명 : 온라인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득과정(취창업지원센터)

우선, 컴퓨터활용능력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가장 활용도가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력서를 쓰기에 좋고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자격증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생각했다. 취득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독학으로 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러던 중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온라인 특강이 열리게 되었다.

학교 <온라인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득 과정>은 컴퓨터활용능력 기출문제 풀이를 통한 필기 및 실습을 바탕으로 한 실기 시험 대비 특강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때마침 좋은 기회에 신청해서 꼭 취득하자고 다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실시간 zoom 수업이 아닌 동영상 강의로 교재는 pdf 파일로 무료 배포된다는 말에 확 끌렸다. 따로 비싼 강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되고 교재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학생으로서 실용적인 측면이었다.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시험 준비를 하려면 교재 구매를 해야 했는데 프로그램 과정에서 강의와 교재를 무료로 얻을 수 있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졌다.

나는 처음 해보는 공부이기도 하고 관련 지식이 전혀 없다. 강의사이트에서 내 강의실을 보고, 총 60차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강의계획서에 주차마다 차시와 일별 강의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한 달로 일정을 정하고 학습하게 되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관련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들과 개념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다. 개념을 기억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강사님이 어렵거나 중요한 부분을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외우는 방법도 알기 쉽게 해주었기에 학습이 훨씬 재밌었다. 강의를 들으며 필기와 실기를 함께 꾸준히 병행하여 흐름이 끊기지 않았고 이해하기도 수월했다.

담당자분이 개인 문자로 이수율, 과정 안내 등을 보내셨고, 이수율을 보면서 조금만 더하면 끝나겠다는 마음이 들어 한결 더 열심히 했다. 담당자님과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고 2번의 중간 퀴즈를 보내주셔서 틀린 문제를 다시 정립할 수 있었다. 강의에서도 중간에 연습문제가 있고 한 단원이 끝나면 모의고사를 계속 봤다.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내용을 체크하고 항상 틀리는 부분을

오답 노트로 만들어 따로 보기도 했다. 자주 틀리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도움이 많이 됐다.

수강이 끝나고 이수율이 100%가 됐을 때 너무 뿌듯했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아 있다. 계획 없이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는 나지만, 이번에는 프로그램에서 강의계획서에 계획을 해줬기에 학습플랜도 잘 세웠고 끝까지 완료했다.

<온라인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득 과정>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다른 학우들도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적인 효율성이 있다. zoom 수업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본인 시간에 맞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온라인 인터넷 강의로 구성되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보기가 가능해서 자신이 놓친 내용,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컴퓨터활용능력 준비를 할 수 있다. 처음 이 자격증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응시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몰랐다. 특히 올해 2021년부터 컴퓨터활용능력이 무엇인가 바뀐다고 하는데 무엇이 바뀌는지 모르는 학우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험 응시 자격, 응시 방법, 2021년 시험이 바뀐 내용을 볼 수 있는 곳,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시험과목, 출제 형태, 시험 시간, 문제를 풀 때 요약적으로 암기하는 방법 등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실용적이다. 자격증 하나를 준비하는데 인터넷 강의, 교재, 시험 응시비 등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와 교재 비용이 무료로 제공되기에 비용이 매우 낮아진다. 학생이 따로 돈을 낼 필요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책을 보게 되면 정의가 너무 길고 알아듣기 어렵다. 분명 한글로 쓰여있지만 생소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알기 어렵다. 그러나 강사님께서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점만 집어주셨고 암기할 때도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암기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암기력에 약한 나도 빨리 외울 수 있었다.

나는 이번 <온라인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득 과정> 프로그램으로 1과목, 2과목, 3과목 개념을 정립했고 문제도 많이 풀어볼 수 있었다. 평소라면 방학이니까 그냥 지나갔을 시간이지만, 이번 방학은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매우 알차게 보낸 것 같다.

실전보고서 작성법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글쓰기 비법

김예찬(불교학과)

◆ 프로그램명 : 나도강사_실전 보고서 작성법(교육역량관리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실전 보고서 작성법 프로그램은 교육역량관리센터에서 진행한 나도 강사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나도 강사 프로젝트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금강대학교 재학생, 교직원들이 강사가 되어 수강을 희망하는 소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재능 기부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그 중 하나인 실전 보고서 작성법 강의는 보고서 혹은 리포트 등의 과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보고서 작성법을 비롯한 기본적인 글쓰기 기술들을 지도해주는 강의이다. 프로그램의 강사는 불교학전공 19학번 박영서 학우였으며 강의는 한 회차에 두 시간 씩, 총 4회차로 진행되었다. 강사를 제외한 수강 인원이 다섯 명 정도였기에 강사가 참여자 개개인에게 집중적인 지도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첫 수업의 학습 목표는 ‘잘 쓴 보고서’와 ‘못 쓴 보고서’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대학교 수준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의 기본적인 포맷과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주로 쓰이는 ‘한컴오피스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배웠다. 필자는 첫 수업을 통해 ‘잘 쓴 글’과 ‘못 쓴 글’의 차이점을 깨달았다. 두 번째 수업은 보고서 혹은 소논문을 작성을 위한 자료 조사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관련 논문이나 정보들을 참고하게 되는데, 이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원하는 정보들을 찾고 그 정보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학습하였다. 또한, 참고한 논문이나 활요한 정보들의 출처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방법을 학습하였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정보들을 알맞게 구성하고 적절하게 배열하는 방법들을 학습하였다. 또한, 품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였다. 네 번째 수업에서는 보고서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퇴고에 대해 심층적으로 학습하였다. 수강자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 혹은 과제 글을 강사가 직접 퇴고해주었다.

참여하게 된 계기 혹은 이유

필자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로 코로나로 인해 대학 강의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수업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시험 방식이 실시간 시험에서 보고서 혹은 리포트 제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퀄리티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러 유용한 팁 또는 정보들을 배운다면 중간 혹은 기말 시험의 평가 방식이 보고서 제출인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여러 유용한 팁 혹은 정보들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과목들은 매우 만족할만한 점수를 받았다. 물론, 높은 학점을 받은 이유가 단순히 좀 더 나은 보고서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보고서 작성이 필자의 학점 상승에 매우 큰 요인으로써 작용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평소 보고서 혹은 시험 서술형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자신감도 낮았기에 보고서를 쓰거나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포기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필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참여하였으며, 보고서 작성을 비롯한 글쓰기 실력의 전반적인 증진과 자신감 향상을 기대하였다.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해당 프로그램은 보고서 작성법 뿐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도해주었으며, 4주에 걸친 지속적인 피드백과 지도는 필자의 글쓰기 실력을 이전보다 향상시켜 주었다.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자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또한 회복되었다.

실전 보고서 작성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느낀 점과 교훈 그리고 성장한 점

필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글쓰기라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며 자신의 실수를 피드백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독서를 통해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여러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고 그것을 글쓰기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논리적, 학문적 글쓰기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으며, 대학생에게 권장되는 여러 인문, 교양, 과학 도서 독서에 조금씩 도전하고 있다. 이처럼 실전 보고서 작성법 프로그램은 필자의 글쓰기 열정에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다.

참가상

① 알게 모르게 자기 이야기가 꺼내지는 해석상담

이채은(경영학과)

◆ 프로그램명 : 심리검사 해석상담(학생상담센터)

② 타로로 한 발짝 더

백채민(경영학과)

◆ 프로그램명 : 타로 이해하기(교육역량관리센터)

③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권지훈(응용불교학과)

◆ 프로그램명 : 찾아가는 취업상담 2차(취창업지원센터)

④ 랜선 유럽여행

이한이(글로벌지역통상학(중국))

◆ 프로그램명 : 교실 밖 유럽여행 A(교육역량관리센터)

⑤ 나에게 맞는 옷

노명지(사회복지학과)

◆ 프로그램명 : 퍼스널컬러컨설팅트_ 나만의 색을 찾아서(교육역량관리센터)

알게 모르게 자기 이야기가 꺼내지는 해석상담

이채은(경영학과)

◆ 프로그램명 : 심리검사 해석상담(학생상담센터)

2020년 2학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모두가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저 또한 외국어 역량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해외연수가 취소되고, 갑작스런 계획 변경에 의해 갈팡질팡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많은 우울감과 상실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집에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서, 좀 더 색다른 활동을 해보고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생각과 달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태껏 자신의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남에게 짜증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1년이 찾아온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우울감이었지만, 당시에는 왜 우울한지도 이유를 몰랐고, 이유를 모르니 해결하지도 못하는 우울감이 계속 쌓여 스트레스만 커져갔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축적에 의해 몸도 많이 망가져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고, 진지하게 큰 병이 생긴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그러던 도중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학생 심리검사 해석상담 공지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학생 심리검사 해석상담은 단순히 심리검사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검사 후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며 검사자에게 도움과 조언을 추가로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심리검사의 종류는 성격검사, 학습검사, 진로검사 등 많이 있었지만, 당시에 필요했던 검사는 스트레스 검사였기에 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하기 전,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는 성격유형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시며 성격검사도 추천하여 주셔서,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말 그대로 '이유없는' 우울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방법이 생겨 조금 개운한 느낌이 들었고, 당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주변인을 멀리하던 저에게 누군가 함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공감해주고 방법을 제시해준다는 것 자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격유형 검사지와 스트레스 검사지를 함께 보내주셔서, 편한시간에 검사를 한 후, 해석상담을 하기로 한 날짜에 결과지를 함께 받아보며 결과지를 보면서 상담을 했

습니다. 검사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지의 첫장에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복통이 있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당시의 제 몸 상태와 같아서, 큰 병이 생겼나 하는 걱정이 없어지고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설문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 후 결과지를 받아보고, 먼저 성격검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스트레스 검사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둘 다 세심히 봐주시고, 검사를 하는 도중 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해주시고,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기 때문 아닌지, 지금은 어떠한지 등 저의 심리상태에 대해 많은 배려와 공감을 해주시고, 별거 아닌 이야기도 세심히 기억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하고 던진 이야기를 검사지 문항 하나하나에 대조해보며 어떨때는 이렇게 않냐는 등의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 수 없다’라는 감정에 성격은 이렇지만, 현재 이런 제한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석 상담을 하는 내내 지금 답답하고, 우울하게 느껴지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자존감에 대한 이유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낮은 자존감은 어학연수가 취소되고, 계속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난 왜 못할까”, “지금 내가 원하는게 뭘까, 할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자존감이 깎여갔는데, 이러한 자존감이 목표의식이 없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것 같다며, 직업흥미도 검사도 추천해주셔서 총 3가지 검사를 하고, 해석상담을 받았습시다. 이렇게 검사를 토대로 하여 자신을 한번 더 되돌아보고, 검사 문항을 읽어보며 자신과 맞춰봄으로써 더 안정되고, 신뢰감을 얻으며 자신을 파악하기는 행동을 하며 우울했던 기분도 많이 나아졌고, 현재는 저의 목표를 찾아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이어져 건강문제, 대인관계문제, 학업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검사 해석상담을 받으며 이유모를 감정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행동분석과 특성분석과 더불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목표를 찾기 위해 또 다른 검사를 해봄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많은 감정적 도움을 받았고,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학교 내의 학생상담센터는 무겁지도 딱딱하지도 않게 부드럽고 공감해주시며 상담해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지 갈피를 못잡겠거나 심지어 그냥 해보고싶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도 재밌고, 어느샌가 술술 이야기를 풀어나고 공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사가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가지 검사를 하고, 해석상담을 받아보면, 반드시 다른 검사도 해보고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저처럼 스트레스뿐만이 아닌 진로, 대인관계, 자신의 강점, 성격등에 대해서도 쉽고 재밌게 풀어 해석상담 해주시기 때문에,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닌 친구와 이야기 하듯 재밌고 부드럽게 자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학우들이 한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타로로 한 발짝 더

백채민(경영학과)

◆ 프로그램명 : 타로 이해하기(교육역량관리센터)

많은들 명확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며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에 신점을 보기도 하고, 관상이나 사주, 타로 등을 보고는 합니다. 저 또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궁금함이 있었고, 이전에 이런 궁금증을 안고서 타로를 보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2번의 타로 상담을 받아보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대전에서, 또 한 번은 학교에 타로 상담가분이 오셨을 때 그 상담가분에게 받았었습니다. 그 두 번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이 타로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과 타로 상담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학교에서 타로 상담을 받기 위해 꽤 오래 기다렸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타로 상담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2번의 타로 상담을 받고서 마음이 편해졌고 친한 사람에게도 제 고민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편인데, 타로 상담을 받으면서는 쉽게 제 고민을 상담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타로에 대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와중,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공지가 올라왔었습니다. 공지를 살펴던 중 개설된 프로그램들 중 '타로 이해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프로그램을 신청할까 고민을 하다가 타로에 대해 배운다면 많은 것을 배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얻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 첫 번째는 타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두 번이라는 많지 않은 타로 경험을 하면서 타로 카드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길래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지 궁금했었는데,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로를 배운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말을 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타로라는 주제에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흥미들이 있기에 그런 타로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어색한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 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로 이해하기' 수업은 타로에 대해 알고 싶은 타로 초보자들에게 딱 맞은 수업이었습니다. 2학기에 진행된 10회기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었는데, 선착순으로 선발되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신



청 후 신청서를 제출해 그 제출서를 바탕으로 강사님이 선별하셔서 수강생들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신청을 하고 난 후 문자로 링크를 받아 작성한 신청서에 있던 질문이 총 5개였는데 타로카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자신의 별자리를 알고 있는지, 타로카드 상단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와 경험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타로카드 수업에 기대하는 점은 어떤 것인지, 성격적인 면에서 스스로 바뀌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인지였습니다. 처음에 질문들을 보고 이걸 언제 작성하지라는 귀찮음이 순간 들어서 괜히 신청했다 후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성하면서 왜 이걸 배우고 싶은지 스스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 다 작성하고 제출할 때는 나름 뿌듯함이 들어서 '된다면 좋겠지만, 떨어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선발이 되었고, 첫 수업을 하기 전 타로 상담에 꼭 필요한 준비물인 타로카드도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10주의 수업 내내 그 타로카드를 직접 보면서 수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첫 주차의 수업에서는 타로 카드의 종류들과 역사부터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메이저 카드부터 시작해 마이너 카드까지 매주 타로카드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업의 마지막쯤에 와서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뽑은 타로카드들을 해석하는 것과 정말 간단하지만 타로 상담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이 공지된 것으로는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것이었지만, 추후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수업시간을 조정해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업자료로는 강사님께서 공유해주신 PDF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각각의 카드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수업의 진행은 줌으로 강사님이 그 자료를 화면공유로 띄워 놓고 카드에 대해서 여러 이

자고서 타로 수업에 참가했었습니다. 만약 타로 수업이 재미가 없었다면 최선을 다해 빠지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지만,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이었기에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즐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갑자기 코로나의 등장으로 학교에 가지 못해 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어디서든 편하게 들 수 있었다는 점이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소통이 어렵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대면이었다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강사분과 수강생들의 소통이 편해서 서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을 것 같은데, 비대면이라 수업 내에 계속 마이크를 끄면서 진행되다가 중간에 마이크를 켜면서 진행되었기에 활발하게 강사님의 질문과 수강생들의 답변이 오 가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하기 전에는 타로카드는 그저 한 종류뿐이라고 무심결에 생각했었는데, 타로 카드의 종류가 꽤 여러 가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역사가 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었기에 타로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배우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님도 타로에 관해 공부하신 지 오래되었고, 강사님께서도 원래 이렇게 짧게 가르치지는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들을 통해서 타로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던 저의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회라는 회차가 어떤 것이든 완벽히 배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입니다. 타로도 마찬가지로 아직에도 타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투성이입니다. 누군가의 타로를 봐줄 수 있냐는 물음에도 저 또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처음 신청하면서 얻고자 했던 두 가지 모두를 얻어갔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타로에 대해서 얻어가는 지식도 있었고 새로운 사람에게 대화를 시작할 새로운 주제를 얻어갔기에 저는 만족합니다. 또한 타로라는 분야에 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학기에 이와 비슷하거나 심화의 타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개설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 학기에 개설이 된다면 수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기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지는 못했지만, 신청을 고민했던 학우 또는 고민하지는 않았지만 타로의 관심이 있는 학우라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타로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디서 처음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우가 있다면, 이 역시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동안 한 학기 '타로 이해하기' 프로그램 덕에 좀 더 풍부한 한 학기를 보냈던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권지훈(응용불교학과)

◆ 프로그램명 : 찾아가는 취업상담 2차(취창업지원센터)

과거의 학연, 지연, 혈연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NCS 등 다양한 취업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한 경우, 갈피는 잡아도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 등 취업은 너무나 멀리 있는 이상과 같았다.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난 후 2학기가 시작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방학과 다름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주말이 되어서야 밀린 강의를 들으며 과제하기 바빴고, 취업에 대한 준비는 물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직 4학년이 아니기에 취업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며, 한편으론 정확한 진로가 없는 나 자신이었기에 취업에 대한 준비는 그 누구보다 막막하였다.

대학에 진학하여 과를 선택하고 전공수업을 들어 나만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여겨지는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아직 정확한 진로가 없어 취업에 대한 준비가 막막하다니 조금 의아할 수도 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고3 수험생들의 필수 과제 중 하나인 진로고민을 대학생이 되어서 까지 하다니, 물론 처음부터 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렸을 때는 비행기 조종사, 선생님, 의사, 천체물리학자 등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한 가지의 꿈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을 때, 수많은 꿈들은 사라지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안정적이며,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만 수없이 생겨났다.

대학 전공이 평생의 직업이 되지는 않는다고 흔히들 주변에서 말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대학시절에 나의 전문성을 갖추고 졸업과 동시에 나의 적성을 맘껏 뽐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 진로를 선택하고 싶었다. 그럴수록 진로선택에 대한 어려움은 커져만 갔고, 그렇게 이과라는 특성에 맞춰 기계공학과라는 두루뭉술한 학과만 정한 채 대학입시를 시작하였으며, 수많은 고민과 실패, 좌절을 경험한 후 평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휘감았다. 벼랑 끝에 몰리면 사람이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인생의 수많은 과정 중 하나였지만 그때 당시의 나에게 벼랑 끝이었고, 나를 다듬고 다시 차근차근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취업과는 조금 거리가 먼 불교학과에 입학하였다.

사람들이 나에게 학과가 무엇이나 물어보면 나는 응용불교학과라고 답한다. 그럼 돌아오는 대답은 “불교학과?, 대학원 가려고?, 나중에 스님 하려고?” 처음에는 불교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으로는 그래, 딱 1년만 불교 공부 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은 후 그때 다시 시작하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그렇게 시간이 흘러 3학년 이 되었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진로고민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불교학과에 오게 되어서 다행이다, 좋은 인연들을 만났으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고, 한번쯤은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긍정적이면서, 나름의 행복한 대학 시절을 지냈다. 하지만 마냥 이렇게 행복하게 대학생 활을 보내다 졸업을 할 수는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나의 직업이 정해져 있거나, 평생 직업을 가지지 않고 평평 놀며 살 수는 없었기에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며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명확한 진로가 없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자고 다짐했으며,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교외의 활동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평소 내가 접해보지 못했거나 나의 관심분야가 아니라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도 도전하였다.

금강대학교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경험하고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수정예이다. 성인이 되었으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노력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야 하지만, 그래도 진정한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 울타리가 대학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금강대학교의 소수정예는 학생 한명, 한명의 진로 및 적성을 찾아 사회로의 첫 발걸음이 그 누구보다 희망차고 안정적이길 바라며 도와준다. 이제 성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덜컥 사회로 나가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졸업하기 전까지 금강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금강대학교의 이러한 특성에 맞춰 많은 부서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매년 수없이 많이 준비한다. 진로, 적성, 흥미,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춰 그 어느 대학보다 수준 높은 강의를 학생들이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학생들 개개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전시킨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위안을 주고, 발전시켰지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취업지원센터에서 2학기에 진행한 찾아가는 취업상담 2차를 뽑을 수 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이란 학교에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선생님께서 오셔서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취업 고민부터, 취업 방향성, 진로에 대한 고민 등 학생 개개인에 맞춘 취업상담 프로그램이다. 1대1로 진행하여 학생들이 평소 쉽게 얘기하지 못했던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아직 뚜렷한 목표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앞으로의 목표 설정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뚜렷한 목표가 있음에도 도달하는 방법을 몰라, 혹은 개인의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그에 맞는 해결책이나 위로 및 방법 제시를 해준다. 간혹 1대1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의 경우 2대1 등 개개인에 최적화 된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찾아가는 취업상담 2차에 참여하게 된 계기 또한 이와 같다. 아직 뚜렷한 진로 목표가 없으며, 그동안의 나의 실패 및 좌절, 그리고 성공의 경험, 과거의 나의 경험들과 생각, 그리고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는 고민 등에 대해 4학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금은 고민의 짐을 덜고 싶었다.

또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던 나에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나를 감쌀 때쯤이면 애써 부정하며 생각을 하지 않았던 나에게 큰 전환점을 주고자 고시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취업에 대한 나의 열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시반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과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취업준비반 이라고 할 수 있다.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 수업을 들으면 이전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나에게 이제 큰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지만 정작 용기가 없었기에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못한 내가 고시반에 들어감으로써 조금은 변화하고 발전된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취업에 대한 더욱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취업설명회에 신청을 해 안내를 받고 처음 취업담당 선생님을 만나러 가던 순간 어떤 대화를 나뉘야 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못한 것 같은데 나의 얘기를 듣고 실망을 하지 않을지, 수많은 고민과 걱정이 생겨났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없었기에 최대한 나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움 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의 걱정과 우려와는 다르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선생님의 질문과 얘기가 시작되었고 나는 마치 꿈속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가슴 속 웅어리처럼 남아있던 무언가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취업상담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취업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했으며, 앞으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것인지 등의 얘기만 하는 것 뿐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출발점에 서 있는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위로, 응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아직 취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에 나와는 관련 없는 프로그램이다, 혹은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 두려워 자신이 없다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금강대학교 학우들에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위해 1시간 쯤 투자하는 것은 어떨지 묻고 싶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방황하는 지금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더욱 잘 되었으면 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준비, 그리고 수많은 도전에 있어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먼 훗날 인생을 돌아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자” 내 인생의 교훈이자 목표이며, 취업지원센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통해 얻는 가장 값진 문장이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짐한다.

랜선 유럽여행

이한이(글로벌지역통상학(중국))

◆ 프로그램명 : 교실 밖 유럽여행 A(교육역량관리센터)

작년 2020년, 나는 내가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아닌 참여하지 않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손에 꼽을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강하며 다른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수업 또한 많았지만 그중에 가장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는 수업은 다름 아닌 2학기 시작과 동시에 같이 시작된 교실 밖 유럽여행 A반이다.

모든 대학생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배낭 메고 떠나는 유럽여행을 코로나와 여의치 못한 상황으로 떠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나 또한 작년 여름에 배낭여행을 친구와 떠나기로 하여 비행기를 예약했다가 다 취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만 아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잊고 살자 하며 마음을 먹고 살던 와중에 2학기에 진행될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구경하다 가장 구미가 당긴 수업이 바로 '교실 밖 유럽여행' 이 수업이었다. 처음에 신청하기 전에는 그냥 뻔하게 유명한 장소들 사진이랑 같이 몇 개만 소개해 주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무미건조하게 진행되는 수업이던 어찌지라며.. 걱정했던 내 마음이 첫 수업을 듣고 싹 사라졌다.

교실 밖 유럽여행 수업은 A반과 B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유럽에서 투어가이드와 비슷한 일을 하시며 현장에서 일하시던 강사님이 수업을 해주셔서 생동감 있게 더 다가왔던 것 같다. 또한 지루하게 한 수업당 국가 하나를 정해서 국가 하나만 정해서 2시간 내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닌 유럽 하면 딱 떠오르는 유명한 여행 명소를 그리고 박물관 등 다양한 장소들을 소개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다. 쉽게 말하면 뻔한 수업이 아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돼서 더 흥미진진하고 기억에 남으며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이었다. 내가 수강했던 A반에게 설명해주신 국가로는 이탈리아와 로마 그리고 피렌체를 설명해 주셨고 유명한 바티칸 박물관과 우피치 미술관 또한 흥미진진하게 설명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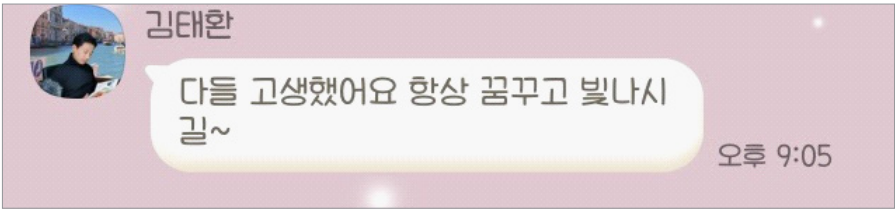
강사님이 계속 혼자서 쪽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아닌 우리 학생들에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다양한 질문들도 계속해주셨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점점 궁금한 점들을 많이 질문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답변과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갈 수 있었다. 또한 강사님이 수업 중에 앞서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퀴즈 등을 준비해 주셔서 그 퀴즈를 맞힌 사람들은 강사님이 개인적으로 카오톡을 이용하여 기프티콘으로 소소한 간식 또한 챙겨주셨다. 이렇게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수업 시간이 2시간인 게 아쉬울 정도로 매주 매주 강사님을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며 아쉬운 마음이 더 커졌다. 쉬는 시간에도 강사님은 그 나라의 전통노래를 틀어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전해주시려고 노력하셨다.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유럽을 상상하면 굉장히 멋있고 신사의 나라이며 다 럭셔리하고 빛나고 깔끔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강사님의 얘기를 듣고 직접 거기서 살고 일하시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워낙 유럽이 물도 더럽고 우리나라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보정 없이 적나라하게 찍힌 사진을 보니 정말 환상이 깨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장면들과 현실적인 모습을 흐린 눈 하며 다 이겨낼 수 있는 멋진 모습도 보여주셔서 참 아이러니한 나라구나.. 생각하며 꼭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다.

강사님은 수업을 정말 지루하지 않게 진행해 주시며 마지막 날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려주신 말 또한 정말 감동적이었다. 우리에게 항상 꿈을 꾸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업 마지막 날에 어떻게 단톡에 카톡으로 올려주신 것을 보며 꼭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다.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의 특성상 한 장소의 1년 변화를 계속 볼 수 있으셨기에 우리에게 어느 계절과 몇 월, 그리고 몇 시쯤 그 공간이 가장 아름답고 환상적인지 말씀해 주셔서 여행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꿀팁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너무 좋았다. 어떠한 공간이든 낮에 보는 것과 저녁에 보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적절한 때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점들을 알려주셔서 좋았다. 그리고 강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소품에서부터 하나하나 표시가 나는데, 강사님은 수업을 위해서 크로마키 배경 천 또한 준비하셨고 듀얼 모니터도 사용하시며 좋은 성능의 마이크와 스크린을 사용해 주셨다. 이런 노력을 해주셔서 수업이 더 빛을 받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정말 수업을 딱 정보 전달을 위해서 딱딱한 형식의 수업이 아닌 우리에게 진심으로 최소의 인력으로 최고의 아웃풋, 즉 최소의 여행경비를 이용하여 최고의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다양한 팁들을 전달해 주셔서 좋았다. 정확하고 더 자세한 수업은 2021학년도 1학기에 이 수업이 또 열린다면 꼭 신청해서 수강한 후 얻어가면 좋을듯하다. 정말 신청해서 수강하면 정말 후회없으리라 내가 보장한다!



수업 마지막 날에 강사님이 단톡에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감동적이었던 말한마디.



4주차 수업 주제

나에게 맞는 옷

노명지(사회복지학과)

◆ 프로그램명 : 퍼스널컬러컨설턴트_ 나만의 색을 찾아서(교육역량관리센터)

‘퍼스널컬러 컨설턴트_나만의 색을 찾아서’라는 2020학년 2학기에 교육역량센터에서 운영했던 비교과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의 피부 색조에 최적화된 맞춤형 컬러를 찾고,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나에게 맞는 색깔을 배합해 이미지를 연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 3회, 오프라인 1회, 비대면(zoom) 3회로 총 7회차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업 재료는 학교에서 제공해 주었고, 이는 온라인 수업을 실습할 때 사용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3번, 비대면 수업을 할 때 1번 해서 총 4번 과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과제를





할 때 조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명도나 배색 방법 등을 배우면서 점점 색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면 수업에서 좋았던 점은 온라인 수업 때 실습한 과제를 직접 피드백을 받으며 무엇이 잘 됐고 부족했는지 알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사님께서 직접 나에게 어울리는 파운데이션이나 립스틱 색을 진단해주시고 내 피부 색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에게 어울리는 옷 색들은 뭐가 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9년 2학기에 로터스칼리지(교육역량센터) 주관 아래 진행되었던 일일 행사에서 퍼스널컬러를 잠시 접했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색깔 한두 가지 소개받는 것에 그쳐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미련이 남아 퍼스널컬러 비교과프로그램이 개설되기 바랬고, 비교과 공지가 뜬 것을 확인하자마자 접수해버렸습니다. 비록 대부분이 비대면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안하기도 했지만,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이쪽 분야에 매우 박식하시고 전문적이라서 퍼스널컬러에 대한 개념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 조색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해보면서 색상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되었고, 전혀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어서 그것들을 검색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동안 나에게 맞지 않는 옷들을 입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분위기가 왜 어색했는지, 평소에 싫어했지만 왜 나에게 어울렸는지 등을 알게 되어 혼란스러웠던 방면에 애써 외면했던 것들을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퍼스널컬러가 단순히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품과 옷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며 나를 받아들이는데 매우 탁월한 장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내 피부 색조를 받아들이고 그

에 따라 나의 색깔을 찾아가는 것이 나를 더 성숙하고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피부 관리입니다. 아직 20대 초반이지만 고등학생 때와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체력과 피부가 망가지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운동 부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육체의 기능이 하나씩 저하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강사님의 말씀은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관리를 시작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과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망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꾸준히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교과프로그램을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거나, 나를 가꾸고 싶거나, 이미지나 분위기 연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까지 가꾸며 나를 이해하고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배움과 성장은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선천적인 부분을 수용하고 나의 본연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을 알아간다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내면도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2020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수기 공모전 작품집

편 집 로터스칼리지 교육역량관리센터

발 행 금강대학교

발 행 일 2021년 2월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http://www.ggu.ac.kr>